

한 고등학생이 동네를 지나다가 불길에 휩싸인 방에서 어린이들이 유리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 이들을 구해냈다는 용감하고도 가상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화재는 단층 35평 건물인 일반 가옥에 새들어 사는 29세의 주부가 오후 5시 반경 6세와 3살난 남매와 동네 아이들 2명을 방에서 놀게 하고 밖에서 방문을 잠고 고 시장을 보러 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었다. 지나던 고교생의 구출 진입 경로와 대피 경로를 통해 연소 확대 진행 상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등학생이 진입할 수 있었던 상황의 화재라면 화재는 초기 착화 단계일 수 있고, 진입 상황에 따라 아이들이 있던 방이 화원부였는가 여부를 가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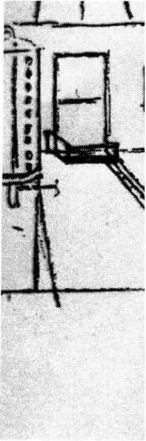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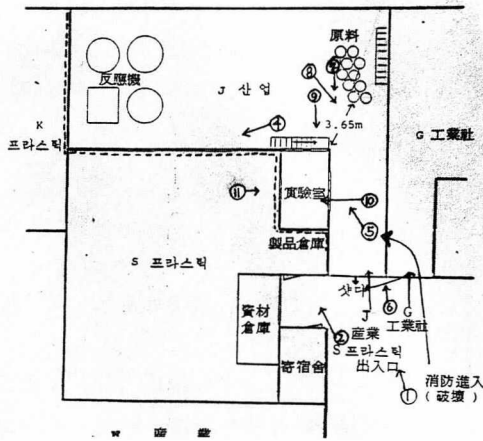
10여 년 전 서울 외곽 도시의 한 국민학교에서 20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재 사건이 있었다.

화재원인 조사실무

화재 원인 조사 실무

송재철

〈경찰청 수사지도관〉



〈그림 1〉 화재 현장의 공장 배치 평면도 (점선부분이 J산업과 S플라스틱의 경계 블록 벽이며 중간 중간에 창문이 있다.) ○속의 번호는 사진번호이며 ↑표는 촬영방향의 표시.

이 화재는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방화로 밝혀져 충격을 준 일이 있다.

검거될 당시 만 10세 밖에 안된 이 소년은 자신이 형사미성년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더욱기가 막힌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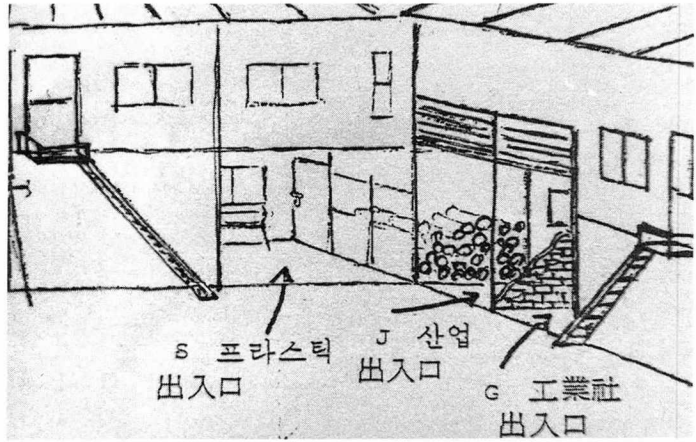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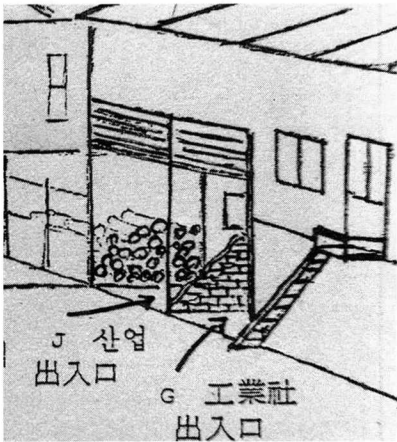
처음의 화재는 5월 8일 밤 8시 50분쯤 5학년 4반 교실에서 발생

하여 다섯개 교실을 소훼케 하였고, 두번째로 5월 29일 밤 8시 40분경에 다른 교실로 이전한 5학년 4반 교실에서 또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두차례에 걸친 5학년 4반 교실에서의 화재로 이 불은 5학년 4반과 관계되는 불로 보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우리학교의 연속 화재’라는 글을 쓰게 하였는데 의외로 5학년 4반 L군의 이름이 거론된 글이 많아 조심스럽게 경찰과 협조하여 L군의 행적과 환경 등을 조사하게 되었다.

L군은 아주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엄마와는 별거 상태에 있었는데 화재가 나던 날마다 인근 작은 읍에 사는 엄마에게로 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결국 불이 나던 날들의 행적을 생생히 이야기하게 되었다.

L군은 당시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모금중이던 성금을 훔칠 마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책상에 돈을 넣어 두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가 밤이되자 몰래 교실로 들어가 선생님의 책상을 뜯고 뒤졌으나 돈은 없고 빵만 2개가 있더라는 것



〈그림 2〉 S플라스틱, J산업, G공업사의 전면 출입구 부근의 입체 약도(J산업과 G공업사는 셔터가 닫혀있었으나 개방 상태로 스케치되었고, G공업사에서 J산업 쪽 경계벽은 소방 진입시 파괴)

〈그림 3〉 〈그림 2〉와 같으나 스케치의 위치를 위에서 좌로 옮겼고 J산업과 G공업사 간의 블록 벽은 파괴 상태로 나

타나 있고 S플라스틱 출구 앞에는 철판 벽이 있으나 상측으로 〈사진 2〉와 같이 공간부가 나타나 있다.

이다. 출출하던 차에 빵을 꺼내 먹고 생각해 보니, 평소 담임 선생님과 급우들로 부터 미움을 받아 온 터에 괜히 빵이 없어진 것 때문에 틀림없이 자신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분풀이로 시험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의 방화도 같은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의미상 분명히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방화 행위이지 어린 소년이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농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화재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회원부 판단의 한 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자.

10월 어느날 00:30경 소규모 밀집 공장 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개 공장이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심야에 발생하여 최초 발견자들의 목격 상황만으로 회원부를 가리기에는 관할 경찰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관



〈사진 1〉 〈그림 3〉과 거의 같은 사진으로 우측 화물차 있는 곳이 G공업사 출입구로 소방이 진입하여 좌측의 블록벽을 파괴하는 소방작업을 한 것이다.

계자들 간에도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다.

소방서의 신고 접수 시간은 00:49, 현장 도착 시간은 00:54으로 되어있고, 현장 1착대인 2대의 소방차는 〈그림 1〉의 S플라스틱, J산업, G공업사의 출입구 앞에 도착하였고, J산업의 출입문이 내려져 닫혀있는 상태에서 철제 셔터가 벌겍게 달아 있고, 셔터 상측 틈으로는 화염이 보이며, 셔터 밑으로는 불이 붙은 액체가 흘러 나오고 있어 화염부를 J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진입코자 했으나, 직접 진입할 상황이 아니

어서 우측 G공업사의 셔터를 부수고 들어가 J산업과의 경계벽인 블록을 파괴(그림 2, 3의 입체도상 블록 경계벽과 사진 참조)하고 foam을 주입하자 일단 불이 잡히는 듯 했으나 S플라스틱 쪽에서 화염이 다시 솟아 오르고 J산업 셔터 앞에서 불이 붙은 채 흘러 내리는 액체가 소방차에 점점 접근하므로 소방차를 후퇴시켰다. 후속대들은 주변 H산업, K플라스틱 뒤쪽으로 들어가 S플라스틱과 J산업으로 접근하여 연소방지에 주력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